

# 대학출판부, 전문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안간힘

## '전국대학출판부도서전' ... '변화의 가능성' 읽어



달랐다는 평가다. "이번 도서전에선 대학출판부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는 신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절감하고,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전시 구성방식을 고민했다"는 영남대학교 출판부 관계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종전엔 각 대학출판부별로 따로 전시되곤 했던 게 보통. 그러나 이번엔 '책,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최근 3년 동안 발행된 신간과 각 대학 출판부에서 낸 2,000여 종의 도서가 전공분야별로 전시됐다. 대학출판부별로 나뉜 종전 전시방식은 정작 독자들로서 관심분야의 책을 체계적으로 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독자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전시기간 중 진행된 할인판매도 성황을 이뤘다. 5일간의 짧은 전시기간이었지만 전시된 1,800종에 대해 20퍼센트 할인판매, 380여 중 4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문 학술서가 많다는 것과 종당 2부씩만 전시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만족할 만하다는 게 주최측 얘기다.

### 대학별 아닌, 전공분야별 전시로 호응...1,800여 종 할인판매 인기

대학출판부는 그 특성상 대중적 교양물보단 학술도서 출판에 치중해 시장의 보폭이 그 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 학술교재 판매만을 주수익원으로 삼아보니, 양질의 출판물을 생산하는 기반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출판부 도서전'은 그런 대학출판부 풍토에 작지만 의미심장한 변화의 조짐을 읽게 한 현장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영남대학교출판부가 개최한 이번 도서전은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 가입한 50개 대학출판부가 참여한 매머드급 행사였다. 발행부수가 적어 일반 서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대학출판부 도서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특히 전시 방식이나 행사 '컨셉트' 자체가 종전과는 크게

### 대학출판부 한계와 가능성 함께 드러내... 일반인들 '대학출판부 새롭게 인식 계기도'

전시장을 찾은 독자들은 "필요한 분야의 책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책을 서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전공별 연구성과와 동향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된 도서들이 이렇게나 다양한지 몰랐다"고 놀라워하는 일반인들도 많았다. 이는 교재나 전공도서들만 출판하는 곳으로 인식된 대학출판부를 새롭게 알렸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소득인 셈이다.

이번 도서전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고급 교양서 기획출판으로 출판문화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해 각 대학출판부가 질적으로 혹은 양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욱이 대학출판부는 자체적으로 학문 전 분야에 걸친 고급인

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수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출판부 활성화에 대한 대학 자체의 정책적인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출판부 관계자는 “좋은 책을 기획·출판함으로써 얻는 홍보효과가 다른 매체를 이용한 광고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출판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대학 내 고급 연구 인력을 활용한 기획, 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편집 및 디자인 강화, 치밀한 마케팅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의 강승구 출판부장은 기획력의 부재를 도마에 올렸다. “기획도서는 한 권 한 권의 가치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얼마나 전략적으로 출판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학출판부가 가진 의욕에 비해 현실 능력은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 과감한 투자와 기획으로 대학출판부 위상 재정립 목소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서전에선 대학출판부 출판물이 노력 여하에 따라선 ‘상품’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대학출판부 도서의 질적 향상을 새삼 과시하는 한편, 대학출판부를 통한 출판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는 저자들이 적지 않아 전시기간 내내 출판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대학 내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과 TV 등 언론매체도 연일 이를 크게 보도했으며,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 일반시민들의 행렬도 줄을 이었다.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종백 편집장은 “도서전에 대한 독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접하고 나니 대학출판부 관계자로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부담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선진 외국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경우 학술서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서, 일반인과 아동을 위한 일반서적, 각종 교과서와 영어교육 관계도서를 출판하는 교육부문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재산성 없는 책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 차원에서 출판한다. 출판의 기준을 판매량이 아닌 서지적 가치에 두고 있는 점이 공신력과 신뢰를 얻는 비결인 셈이다.

이 편집장은 특히 원대한 출판계획으로 장기연속 시리즈물을 출판, 세계적인 출판부로 성장하고 있는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책의 기획과 충실한 내용 및 편집으로 독자들을 향한 마케팅이 이루어질 때 대학출판부가 발전할 수 있다”며 “수익과는 관계없이 책의 가치에 따라 출판 여부를 판단하는 옥스퍼드의 출판 지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출판부라고 해도 콘텐츠만 뒷받침된다면 일반인과 아동을 위한 책까지도 출판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영남대학교출판부 제공

#### 인터뷰 \_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종백 편집장

### “대중과 호흡하는 대학출판부로서 기능 발휘해야”



“이번 도서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종백 편집장은 이번 도서전 성과에 대해 크게 만족했다. 무엇보다 학술도서 위주로 출판함으로써 대학출판부에 대해 독자들이 가진 편견을 어느 정도 걷어내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최근 각 대학출판부가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대학출판부가 이뤄낸 그동안의 출판 성과와 신간들을 소개하는 자리로서도 이번 도서전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최근 각 대학출판부는 독립브랜드를 내세워 출판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고급 교양물 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영남대학교출판부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독립브랜드를 만들고자 몇 가지 브랜드 이름을 두고 공모와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서전에서 독자와 직접 만나 나눈 책에 대한 반응과 의견들을 향후 도서 기획이나 제작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영남대학교출판부는 지난 달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도 참가해 ‘한국문화사상대계’ 시리즈 4종과 한·중·일 3국의 연력을 정리한 ‘연력대전’ 시리즈 등 10여 종의 도서를 선보였다. 이 편집장은 “세계 출판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학문발전에 초석이 된 교양물들을 번역, 소개해 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계기로 대학출판물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전 없이는 결코 성공도 없습니다. 이제 대학출판부는 대학 안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출판사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영남대학교출판부 역시 좋은 책을 기획하고 제작해 국내외 시장을 무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